

대만 전자산업동향

조사부

1. 경제동향

구 분	94	95	96
GDP 성장률	6.5	6.6	6.5
소비자물가지수	4.1	3.6	3.7
산업생산	4.0	5.7	5.0

대만의 산업구조는 고품질의 제품들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85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의 수출주종산업은 섬유산업이었으나 '86년 이후부터는 전자산업이 그 위치를 대신하고 있다. 대만은 현재 노동집약산업 들을 대만보다 인건비가 싼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중국 등으로 이전시키고 있다. 이럼으로써 향후 대만의 산업은 자본집약적인 첨단 제조산업 위주가 될 것이다. 대만 당국은 현재 첨단가전산업, 정보산업, 항공기산업 등과 같은 전망이 좋은 10대 산업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80년대말 중국본토와의 관계가 많이 개선된 이후 대만의 수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제조공장을 중국본토로 이전시켰다.

2만여개 이상의 기업들이 중국 본토로 제조공장을 이전시켰는데 이러한 투자 규모를 수치적으로 환산하면 수십억불 규모이다. 최근 중국경제의 급성장세와 투자의 결과로, 대만은 직접적으로 많은 혜택을 입고 있다.

2. 전자산업 동향

대만의 컴퓨터산업은(이중에서도 특히 PC부문) 최근들어 경이적인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컴퓨터기기와 부품의 '93생산증가율은 31%, '94생산증가율은 22%이며 현재는 전체 전자제품 및 부품생산의 52% 가량을 컴퓨터가 차지하고 있다. 완성부품의 '93생산증가율은 7%이며 '94생산증가율은 4%로 전체생산의 31%를 차지한다. 이같은 수치는 최근들어 급성장하고 있는 웨이퍼와 집적회로의 생산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기타 주요 분야로는 통신분야를 들수있다. 통신분야의 생산은 전체생산의 10% 가량을 차지하며 '94년 9.4%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가전제품의 생산은 계속해

서 감소세이다.

'93년에 13%가 감소되었으며 '94년에는 8%가 감소되어 현재는 겨우 전체생산의 5%를 차지한다. 대만은 현재 세계 최대의 노트북컴퓨터 공급국 중의 하나이다. 대만의 노트북컴퓨터 생산규모는 '94년의 경우 130만대이다. 대만은 또한 세계 최대의 주기판, 마우스, 스캐너, 모니터, 키보드 공급국이다. 대만 전자전기산업의 중추는 중소기업들이며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평균 종업원수는 105명이다. 또한 대만의 전자전기 분야의 기업수는 4,300여개로, 이중 4,120개는 대만기업이며, 70개는 대만-일본 합작기업, 38개는 일본기업, 25개는 미국기업, 18개는 대만-미국 합작기업이며 나머지 29개는 기타국들의 투자기업들이다. 전자산업은 수년동안 대만의 주요 수출산업으로 자리해 왔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홍콩, 유럽, 그리고 일본 등이다. 대만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전자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왔으며, 현재는 부품, 데이터처리, 소프트

대만 전자산업 동향과 전망

(단위 : 백만불)

구 分	1994		1995		1996	
	생 산	시 장	생 산	시 장	생 산	시 장
전자산업계	23,337	13,350	25,634	14,987	27,565	15,931
산업용기기소계	14,847	3,416	16,759	3,474	18,220	3,533
정보기기	12,029	1,167	13,833	1,249	15,216	1,324
사무기기	173	148	165	154	156	158
계측및제어기기	124	868	134	825	142	792
의료및산업전자	250	241	266	258	281	272
정보통신기기	2,271	992	2,361	988	2,425	987
가정용기기소계	1,196	966	1,142	1,005	1,083	1,036
영상기기	525	454	530	481	525	505
칼라TV	267	254	275	283	278	311
흑백TV	33	5	29	5	24	4
비디오레코더등	157	189	152	188	143	184
위성수신기	67	5	74	6	80	6
음향기기	507	453	456	462	411	467
라디오	160		163		164	
레코더플레이어	8		25		22	
CD	46		40		34	
라디오카세트레코더	193		150		116	
기타	80		78		76	
기타	164	60	155	62	148	65
전자부품소계	7,295	8,967	7,733	10,509	8,261	11,362
능동부품	2,722	6,080	2,858	7,457	3,144	8,203
밸브&튜브	420	1,210	419	1,237	434	1,234
다이오드	411	404	347	483	305	506
트랜지스터	157	333	144	362	138	343
개별반도체	168	137	182	157	205	157
IC등	1,560	3,997	1,765	5,219	2,062	5,962
수동부품	2,971	2,232	3,208	2,410	3,401	2,531
콘덴서	410	481	415	533	410	573
저항기	251	155	244	143	231	128
코넥터	244	290	285	299	325	299
트랜지스터등	263	242	230	234	196	221
릴레이	2	74	1	77	1	78
스위치	76	153	73	155	69	152
PCB	1,724	839	1,959	969	2,170	1,082
기타	1,602	654	1,666	641	1,716	628

주)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1996. Vol. II

웨어, 통신장비, 산업용전자, 계측기, 그리고 가전제품분야를 키우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산업용 전자분야와 관련하여 대만의 경제부는 차세대 인공지능로보트를 개발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대만의 로보트기술에 대한 활용은 로보트 응용분야 성장을에 있어서 세계에서 두번째이다. 대만의 산업개발부는 가전분야에 대한 계속되는 투자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전산업 발전 4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대만 달러(NT) 가치의 상승과 노동력부족, 사회불안과 다른 신홍공업국들과의 경쟁 등으로 대만의 가전산업 성장을은 꾸준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관계로 대만 정부는 상기의 가전산업발전 4개년 계획을 활용하여 가전산업분야의 근로자 교육을 지원하며 각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HDTV관련 기술개발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또한 이러한 가전산업발전 4개년 계획이외에도 대만산업의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중요부품의 개발/수입 6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에따라 대만 정부는 88개 품목을 선정하여 '98년까지 대만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러한 품목들로는 고성능 CPU,

16/64 Mbit DRAM, 4/16 Mbit SCRAM, A/D컨버터, 대형 TFT LCD, RF/마이크로웨이브 부품, 통신장비소자, 그리고 HDD 등이 있다.

또한 대만 국립 과학위원회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15개의 연구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세를 확장하려는 대만기업들에게도 골치아픈 문제는 있다. 대만기업들은 높은 임금과 단가때문에 제품가격들을 계속 인상시키고 있으며, 몇몇 기업들은 임금이 싸고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시키고 있다. 중국본토는 첨단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전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필리핀이나 싱가폴, 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만은 부품의 해외생산을 증가시킴으로 자체의 생산규모를 유지시키고 있다.

3. 업계동향

- 대만의 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MC)사는 북미의 6개기업들과 협작으로 10억불을 투자하여 대만의 신축공단에 웨이

피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 미국의 디지털사는 대만 경제부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디지털사는 경제부와 협작사업을 벌이기 위해 대만에 아시아/태평양 영업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 일본의 미쓰비씨전기사와 가네마쓰사, 그리고 대만의 Umax그룹은 대만에 새로운 DRAM제조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새로운 회사의 이름은 Powerchip Semiconductor로 명명될 것이며 타이페이 근교의 신축공단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 대만의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사는 4번째 공장의 건설을 시작하였다. 이 공장의 건설은 '95년에 생산을 시작한 3번째 공장 가동이전에 시작된 것이며 '98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대만의 협작기업인 Ti-Acer사는 대만에 있는 그들의 세번째 웨이퍼공장에 10억불을 투자 중이다. '97년 2/4분기경에 가동 예정의 이 공장은 월평균 8"웨이퍼 3만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16/64Mbit DRAM을 생산할 계획이다.

- 대만의 Nan Ya Plastics사는 월 3만장의 동충박판보드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PCB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 대만의 컴퓨터 및 가전제품 그룹인 Tatung사는 반도체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류공단에 IC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Tatung사는 이 공장에 7억 6,600만불을 투자하여 가전부문에 공급할 예정이며, 수출도 월 25,000개씩 할 예정이다.

- 대만의 투자개발청과 DEC사는 전략적 제휴의 일환으로 대만 북부의 타쉬부근에 PCS/멀티미디어기기 R&D/생산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 신에츄사는 50억 대만달러를 투자하여 대만에 8"실시콘웨이퍼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 일본의 Komatsu사는 대만의 Asia Pacific Investment사 및 Formosa Plastic사와 협작으로 2억5천만불을 투자하여 8"웨이퍼 생산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97년에나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이 8"웨이퍼공장의 초기생산 규모는 월 7만장 수준이 될 것이다.